|  |
| --- |
| **# 첨부 파일 3 :예장통합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될 것인가..**  **- 예장통합 대전 예닮교회 안천일 목사 –**  2014년 5월22일은 세계 기독교 사상, 한국 기독교 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되리라.  NCCK와 소속교단의 교회대표들이 종교개혁이후 500년만에 한국 카톨릭과 연합. 일치하기로 끝내 조인하였다.  5천년 우리 민족사상 가장 치욕의 역사, 한일합방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매국 조약에 서명 조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천황에 무릎 꿇은 몇몇 매국노들의 죄 값으로 36년간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생명이 의용군, 정신대로 무참히 죽어나가 짓밟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이기적인 사고와 무책임한 만행으로 300여명의 학생들의 귀한 생명을 차가운 바다 가운데서 건지지 못하고 결국 잃어버렸다. 이미 어둠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배안에서 아직 살아 몸부림치는 아이들에게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소수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탐욕과 교만, 이기심과 무책임은 이토록 귀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해본다. 그래서 소속한 구성원들이 대표를 잘 뽑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끌어내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와 사랑하는 가족, 교회, 사회, 민족 온 인류가 받게 될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NCCK 총무 김영주와 몇몇 교단의 가라지 목사들의 죄값으로 인해 이젠, 우리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이 위험에 빠졌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7천만 민족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졌다. 핵전쟁이나 화학. 생물학전쟁으로 우리 집이 불바다가 되고 경제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큰 위험에 빠졌을 뿐 아니라, 배도로 인해 지옥 유황불 바다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을 위험에 빠졌다.  그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기독교가 카톨릭과 신앙을 일치시키겠다고 싸인을 하다니...  이것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다시금 이단중의 괴수! 카톨릭 교황앞에 무릎 꿇겠다고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도 백주에 언론 기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배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정도로 NCCK와 예장(통합)을 비롯한 소속 교단 목사들이 마귀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태를 연출하였다.  로마 카톨릭의 정체는 종교 개혁자들과 역대 기독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규명되었다. 교황스스로 당시 로마에 존재하던 이교도의 승정원장을 겸하고 나서, 초상화나 성자상, 죽은자의 유골앞에 절하고, 미사 제도를 만들어 화체설을 주장하고, 염주를 굴리며 기도 주문을 외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고해성사를 도입하여 사제가 죄사함의 보속을 명령하고, 면죄부를 판매하여 사기 기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가 하면 종교재판소를 두어 마녀사냥식 철권 통치를 하였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연옥설을 주장하는 등 로마 카톨릭의 반 성경적  이단성은 마침내 로마 교황 전횡 천년 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종교 개혁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회개하고 진리로 회귀했을까? 아니올시다.  오히려, 유전이나 전승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했고,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하였고,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삼았으며, 19세기에는 교황이 되는 순간 죄나 오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교황 무오설로 교황을 신격화시켰다.  또 20 세기에 들어서서는 마리아 은총의 중재자설, 마리아 천황후설 - 하나님의 어머니설, 심지어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부활 승천설까지 결정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은 더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던 가브리엘 천사앞에서 스스로 계집종이라고 고백한 마리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인 마리아를 신으로 떠받들어 섬기는 명백한 우상숭배를 하는 이교!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다.  오호! 통재라......  그런데, 이게 웬 치욕스런 일인가?  이런 반 기독교, 이단중의 괴수요, 다른 종교 카톨릭과 신앙을 일치시키고, 직분과 제도를 일치시키겠다고 NCCK와 예장(통합) 등 소속 교회들이 한국 천주교와 신앙과 직제 일치협의회를 결성, 조인하였다.  한국 기독교회의 몇몇 가라지 목사들이 마귀와 작당을 하여, 6천만 기독교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게 하는 치욕의 사건이 바로 한국 교회안에서 2014년 5월22일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 하나의 성도로서 땅을 치고 통분할 수 밖에 없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시사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이 어찌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인가?  자...이젠, 이렇게 심각한 국면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일일까?  어차피 배도의 현상은 성경말씀에 예언된 일이니 그만 체념하고 말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잘 챙기고 잘 가르쳐서 구원받고 들림 받도록 인도하면 될 일이니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할까?  지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NCCK의 실체와 교단의 대표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 파급효과와 영향, 그 배후의 실체와 그 의도, 목적을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도 갖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다.  한국 교회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한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영문도 모른채 어린 양들을 이대로 지옥의 불바다에 수장시킬 순 없잖은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말로 악인에게 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겔3:17-19)**  한국 교회가 이미 반쯤 기울기 시작하였다!  크게 외쳐 알려줘야만 한다. "밖으로 뛰어 나오라!" 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탄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다!"  "TV로 드라마, 야구, 영화 보며 게임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시집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놀러갈 때가 아니야! "  "우리 교회 건축할 땅을 사고, 은행 빚을 빌리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노회장, 총회장되려고 야심을 품고..  성도들 숫자 늘려 각종 헌금을 짜낼 궁리할 때가 아니야!"  "제발...정신 차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56:10-11)**  "안전하다. 평안하다. 구원은 따 놓은 당상이다. 복받아라...하는 거짓 방송 가짜 설교 사탕발림 소리 이제는 그만 하자.”  "회칠한 무덤 같은 NCCK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 나오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죽은 그곳에서 즉시 뛰쳐 나오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짜 사이비 교단에서 탈퇴하라!"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되심을 거부하는 NCCK. WCC에서 탈퇴하라! 해체시켜라!"  "믿음의 선조 6,000만명을 고문하고 불태워 죽인 원흉,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리, 영혼의 유괴범이요 이단의 괴수인 로마 카톨릭 교황의 마수에서 도망쳐라~!"  <http://cafe.daum.net/prayto7> |

|  |
| --- |
|  |

**출처** :함께 기도 해요 [원문보기](http://cafe.daum.net/_service/bbs_read?grpid=1TZRM&fldid=4Qy&contentval=0000Szzzzzzzzzzzzzzzzzzzzzzzzz)▶ **글쓴이** : 하하나나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